

퀘이사 월간지\_2020년\_06월호  
2차전지 섹터\_종합의견\_후반전이 시작되다

작성자: 땡기왕자

\*6월호는 22PAGE부터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0년3월호

=>코로나 증시 폭락으로 2차전지 섹터의 종목들도 큰 조정을 받았네요. 2월 전에 비중을 많이 못 담은 분들에게는, '와, 다시 이런 기회를 준다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2월 초에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지금 사도 될까요?"라고 묻던 분들은 아마 이번 기회에 추가로 매수 하셨을 겁니다. 똑같은 기업인데 주가만 변한거잖아요?

=>코로나가 오면 우리는 내연기관 자동차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코로나가 오면 유럽이 환경규제를 풀까요?

=>많은 사람들이 핵심 가치에 집중하지 않고, '유럽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단데, 큰일 아니냐?', '유가가 떨어진단데 그럼 전기차 매력에 없어지는게 아니냐?' 자꾸 스끼다시(?)에 집중합니다.

=>공장이 섰다운 되었으면, 섰다운 풀리면 다시 폭등을 하겠죠. 간단한 겁니다.

삼성SDI (006400)

전기차도 피해갈 수 없는 경기 우려



잘 나가던 전기차도 코로나19에 제동이 걸렸다. 자동차 수요 부진과 생산 차질이 더해지고, 유가 급락에 따라 전기차의 매력에 희석되고 있다. 상반기 실적 전망에 있어 IT Set 및 자동차 수요 둔화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유럽 전기차 시장은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동사에게 유리한 경쟁 환경이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다음은 키움증권의 삼성SDI 레포트인데, 1분기, 2분기 실적 우려? 그럴 수 있죠. 근데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2차전지 종목들의 1분기, 2분기 실적은 안 좋았을 겁니다.

=>이쪽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2년, 3년 뒤 미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단기매매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증장기 관점에선 당연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죠.

=>2차전지는 앞으로 3년 적립식으로 꼭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 드려도 바이러스로 주가가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평소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건데, 주식투자는 심리가 반대로 움직이긴 하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반도체가 한국을 먹여살렸다면, 앞으로는 배터리가 한국을 먹여살리게 될 겁니다.

=>2030년까지 더 넓게 보면 배터리 산업만큼 미래가 명확하고,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걸 단순히 코로나로 생산 차질이 생겼다, 유가가 하락했다,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매도를 한다면 과연 나중에 2년, 3년 뒤 바라보면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장이 섰다운 되면, 나중에는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겠죠.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겁니다. 영원히 공장이 문을 닫을까요?

=>바이러스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 공장, 일하는 직원이 사라진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소멸되면 다시 정상화가 되는 것이지요. 떨어졌던 주가도 다시 정상화가 되는 것이지요.

=>2차전지는 VIEW가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2차전지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죠. 손절이란건 존재할 수 없는 섹터입니다. 저도 보유 중인데 주가 떨어진 것을 기분 좋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직 비중이 적거나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떨어지지 말아야 될 섹터까지 떨어졌다면 그 섹터는 바로 2차전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공장 생산 차질? 증권사 의견도 봤는데 2분기부터 생산 차질 실적 부진이 반영 될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인데 주담과 통화를 해보면 일단은 아직 그런 것 없다는 답변이네요.

=>자동차 산업은 공장 중단 등으로 안 좋았어요. 3세대 전기차는 생산도 안했거든요?

=>3세대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500KM가는건데, 자동차 회사들이 발주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생산 라인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3세대 전기차 라인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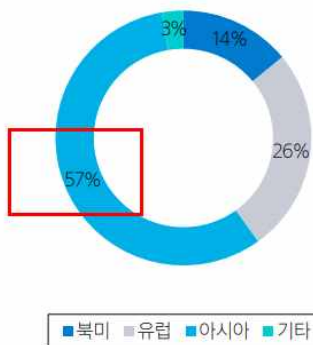
=>지금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주가도 감염되서 우르르 떨어졌는데, 실적 하향 조정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성 대비 저평가->실적 성장->주가 회복 이상의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2차전지 섹터는.

=>그래서 다같이 떨어졌다면 상반기는 2차전지 섹터 중심의 매수를 가져가는데 나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기차 수요 지역별 비중



참고: 2019년 기준  
자료: EV-Volumes

=>전기차는 올해 결국 유럽을 봐야 되는데, 유럽지역에서의 코로나 확산 움직임은 2차전지 밸류체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 완성차 업체: 공장 가동 중단 현황

업체명	내용
BMW	- 4월 19일까지 유럽 및 남아프리카 공장 가동 중단 예정. - Mini와 Rolls-Royce도 공장 가동 중단.
혼다	- 4월 초까지 영국 공장 가동 중단.
도요타	- 3월 18일부터 유럽 내 공장 가동 중단.
다임러*	- 공급차질로 유럽 내 Mercedes-Benz 공장 2주간 가동 중단.
포드	- 3월 19일부터 영국 공장 가동 중단.
닛산	- 공급차질 및 수요약세로 영국 공장 가동 중단.
폭스바겐*	- Volkswagen의 유럽 내 공장 가동 중단. - Skoda는 3월 18일부터 2주간 체코 공장 가동 중단. - Lamborghini는 3월 25일까지 이탈리아 공장 가동 중단. - Porsche는 3월 21일부터 2주간 공장 가동 중단.
PSA*	- 3월 27일까지 유럽 내 공장 가동 중단.
르노*	- 3월 16일부터 프랑스,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및 모로코 공장 가동 중단. - Dacia는 4월 5일까지 공장 가동 중단 예정.
크라이슬러	- 이탈리아 공장 가동 중단. - 급주 초, 이탈리아에 위치한 Atessa 공장 재가동 했으나 공급차질로 인해 가동 중단.
페라리	- 3월 27일까지 공장 2곳 가동 중단.
볼보	- 3월 17일부터 벨기에 공장 가동 중단.
재규어/랜드로버*	- 3월 20일부터 슬로바키아 공장 가동 중단 예정.

참고: \* 상기 브랜드는 LG화학 폴란드 공장에서 대응하는 완성차 업체

도표 1 2월에도 유럽 전기차 판매 고성장세 지속



자료: 보도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1월, 2월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던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3월부터 유럽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이란 투심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수혜 시간은 지연되더라도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서는 2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코로나가 상반기에는 진정될 것이다, 아니면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장기화될 것이다.

=>만약 후자의 상태로 시장 상황이 돌아간다면 정말 최악의 순간을 맞이해야 될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은 중단되고, 방콕만 하라, 사람 만나지 마라, 집에만 있어라 등 전염병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실물경제를 박살내는거죠.

=>후자는 생각하기도 싫고, 전자의 상황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점

근 방법이라면 최근 3월 2주간 이어졌던 주가 하락폭은 기업의 미래 예상 실적을 감안하면 우려감들이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과매도 구간 투매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2년~3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주식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타당해 보입니다.

=>국경이 봉쇄되면 생산기지에서의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들의 수요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산차질과 수요부진이라는 이중고를 우려하는 것이죠.

=>결국엔 어떤 산업이든 결국 코로나가 해소가 되어야 모든 문제가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도 실적 컨센을 하향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분기는 특히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2차전지 실적이 아니라 기존 사업들의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원래부터 부진이 예상됐었고,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2분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EV 배터리 수요 부진의 지속 정도 및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황.

=>만약 코로나가 상반기에 진정된다면 3분기부터는 전기차 수요가 서서히 개선되어 4분기에는 일정 부분 수요까지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전방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 패닉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3월 한 달 동안의 주가 급락은 이미 연내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코로나가 상반기에 잡힌다면, 현 주가 시점에서 추가 매수가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이고, 만약 올해 하반기까지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는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언제 잡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핵심가치(내연기관차->전기차)가 변하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상반기에 잡히든, 하반기에 잡히든 내년엔 잡히든 상관없이 장기투자를 하면 됩니다.

=>다만, 원래 3년 보유하려고 했는데 5년 보유해야 되면 그만큼 투자 기간이 딜레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짜증은 나죠.

=>전염병으로 2차전지 섹터에 스크래치가 날 것이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다만 코로나19 이후 증시 반등 국면에서 2차전지 섹터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두어야 됩니다.

=>억눌렸던 수요가 소비재와 서비스업보다도 내구재, IT, 시클리컬 산업의 수요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1분기, 2분기에 못 만들면 3분기, 4분기에는 상반기에 못 만든 물량까지 야근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1분기에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다고 2분기에 2개를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소비재와 서비스업보다는 내구재, IT, 시클리컬 산업 쪽의 억눌렸던 수요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유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심리도 훼손되었는데, 전기차는 유가보다는 친환경 정책 때문에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유가가 핵심은 아닙니다.

=>3월22일 기준, 2차전지 소재업체들의 주가는 2020년은 무시하고, 2021년 시장-컨센서스를 기준으로 PER14배까지 낮아졌습니다. 평균 PER30배는 받아도 된다고 했던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말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코로나 여파로 유럽 배터리 수요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핵심가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상반기중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다음 양보할 수 없는 장기모멘텀이 살아있고, 장기실적의 대한 신뢰도가 높은 2차전지 섹터.... 저는 전 산업을 다 공부하고, 섹터와 싸이클의 흐름까지도 파악을 하는데,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월간지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제 투자 아이디어로는 앞으로 3년 동안 2차전지 산업을 능가하는 산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2월 전고점대비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던 것이 2차전지 섹터였습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은 유럽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공장 가동을 문제와 소비 감소 우려 문제.

=>코로나가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음 분기라도 어떻게든

맞춰야 됩니다.

=>코로나건 나발이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와 상관없이 장비, 소재, 부품 기업들은 약속된 계약 물량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연되어 나올 수 밖에 없고, 코로나 감염으로 상반기에 가동률이 떨어지면 하반기에는 야근, 특근을 해서라도 가동률을 끌어 올려야 겠죠.

=>5G도 마찬가지죠. 다만 5G는 올해 이제 지는 테마이고, 2차전지는 올해 본격적으로 뜨는 테마고요. 2차전지는 앞으로 투자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5G는 올해 안 오르면 사실 내년도에 더 크게 오를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 차이는 존재합니다.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주가 폭락으로 인해 다 매력적이지만, 주가상승여력은 장비주가 상대적으로 큼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부품주는 장비주보다 수혜 기간이 길고, 누적으로 적립식투자를 통해 쌓아올리면 누적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훨씬 클 것이고, 즉, 소재, 부품주는 수혜 기간이 무한대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중국과 공급과잉에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 ♣♣♣2020년04월호

=>이번 증시 1차 유동성 장세에 가장 많이 반등한 섹터가 2차전지 섹터라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2차전지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 100년만에 바뀌고 있는 굉장히 빅 사이클을 예고하고 있는 산업이자 이미 섹터로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배터리 자동차는 영속적인 산업(배터리 소재는 최소 100년)이고, 단기적인 분기 실적 상관없이 계속 보유입니다.

=>다만, 1분기/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차 유동성 장세 이후 단기적으로는 3개월 정도(여름장)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빈자리는 <포스트 코로나 섹터>가 채웁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2월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이후부터 동행지표, 후행지표인 경기지표, 실적지표들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이미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공포이고, 두려운 것이지 설령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다시 1,400으로 가는 길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IT반도체, 전기차 섹터의 주가의 궤는 같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IT반도체, 전기차 섹터가 여름장에 홍보한다면 그쪽 섹터 비중을 줄이고, 그들이 쉬는 동안 오를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섹터 비중을 늘려볼까?' 이런 생각도 괜찮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섹터가 끝나면, 다시 IT반도체, 전기차 섹터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음식료 섹터 등 내수주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전기차 섹터와 반대로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료 섹터(건강기능식품 포함)도 3개월 동안은 주도 섹터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는 삼양식품이고 대장주는 팜스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료, 제약 등 필수소비재 섹터 중에서도 대북과 연관이 있는 종목은 대한약품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주(장비)산업은 거래처, 고객사가 물건을 언제까지 만들어와, 하면 그걸 가져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만큼 실적이 안 좋아지는건데, 우리는 거래처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회사예요. 배터리 회사는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소재는 아직 3세대 배터리 만들지도 않았고, 증설하는 과정이라 2차전지 섹터는 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헝가리 공장은 전세기를 띄워 직원 300명을 급파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수주기업들은 고객사가 주문한 물량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깐 실적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삼성SDI도 증설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중)



=>코로나 사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과 투자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유럽의 완성차 공장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배터리 공장은 정상 가동 중입니다. 위기 상황이지만 주문 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배터리 수급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2차전지 섹터의 뚜렷한 실적 악화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멸 수요가 아니라 이연 수요**이기 때문에 1,2분기 물량 납기를 못하면 3,4분기에 1,2분기에 못한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행입니다.

=>2차전지 섹터는 실적과 상관없이 1등기업의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차전지 섹터는 IT반도체 섹터와 주가의 궤를 같이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증시가 올 여름에는 경기 지표, 실적 지표 등으로 인해 4월 1차 유동성 장세를 끝으로 여름에 3개월~4개월 정도 주가가 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최소 3개월 동안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중 조절이나 추가 매수 전략을 각자 알아서 판단해보시고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가만히 보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차전지 장비 업체들 성장률보다 소재 업체들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란 생각은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수혜를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네이버, 10년 전 카카오를 생각한다면?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모두 10년 넘게 100배가 오른 네이버에 장기투자를 했겠죠. 다만, 네이버가 인터넷포털 모든 치킨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년 전 네이버 실적, 10년 전 카카오 실적 모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2030년에 10년 뒤를 돌아본다면? 2차전지 섹터를 10년 뒤에 본다

면? 100배는 다소 무리더라도,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 **10년 뒤 지금  
추가보다 최소 10배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가장 유력한 후보를 포스코케미칼로 보고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치킨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98년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는 것을 2번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둘째는 모바일 인터넷(스마트폰)입니다.

=>세번째는 2차전지(전기차 배터리)입니다.

=>한류는 1차 한류가 반도체, 가전이었고 2차 한류가 영화, 드라마였고 3차 한류가 K-POP이었습니다. 4차 한류는 웹툰(미스터블루)이고, 5차 한류는 K-방역(K-헬스케어)입니다. 4차, 5차 한류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10년을 넘어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까, 그 기업의 주가는? 배당은?

=>20년 뒤에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온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까? 누가 제2의 삼성전자, 네이버가 될까요? 분명히 2차전지 섹터(소재)에서 나올 겁니다. 그 기업 하나가 나의 노후를 먹여 살립니다. 평생 팔지 않아도, 지금 1주에 3,000원을 주고 샀다면 20년 뒤에 1주에 2,500씩 배당이 나옵니다. 평생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장기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도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이 끝난 뒤 나중에 내가 산 만큼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1억원치를 사두고, 30년 뒤에 1년에 8,000만원씩 배당을 받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성화재 같은 주식이 그렇죠.

=>분명히 2차전지 섹터에서 제2의 삼성전자, 삼성화재 나옵니다.

	장기투자	중기투자
1	산업의 성장	NEW트렌드
2	영속성	실적
3	1등기업	차트

=>슈퍼개미 박영옥의 장기투자 조건 3가지를 보면, **1)산업의 성장 2)영속성 3)1등기업**입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산업의 성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 2가지

있다면 **1)2차전지 2)고령화입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지구 상에 전기 말고 천연으로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또 있을까요?

풍력? 수소? 근데 수소차도 결국 전기차예요.

**=>내연기관은 100년이었지만, 전기는 영원히 갈 것 같은데요?**

=>2차전지는 산업의 성장, 영속성을 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조건이 1등기업입니다.

=>초기에는 1등, 2등과의 차이가 못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1등기업이 마진율이 높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니다. AS도 좋아지고, 모든게 점점 더 좋아집니다.

**=>양극재 분야는 포스코케미칼이 1등기업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더 매력적이고, 장기적으로는 포스코케미칼이 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케미칼은 POSCO그룹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수직계열화도 되어 있고...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맨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2차전지 양극재는 3원재(니켈/코발트/망간or알루미늄)에서 4원재로 바뀌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1등과 2등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 10년 뒤에 치킨경쟁 뒤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1등, 2등, 3등으로 나뉘지는데, 포스코케미칼이 그 안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성장에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인데 초기 사업 시작을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소재주는 10년 투자하게 되면은 주가가 우상향하게 될텐데, 주가 상승은 둘째치고 배당....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가 앞으로 100년 간다고 가정했을 때, 굳이 주식을 팔지 않고도, 팔 수가 없는 배당금을 준다면?

=>1주에 3,000원을 주고 샀는데, 향후 10년 뒤, 20년 뒤에 배당을 2,500원씩 준다면?

=>치킨경쟁이 이미 끝나고, 전 세계가 글로벌 독과점 체제가 되어 버

리면?

=>그때가 되면 가격 경쟁을 안 하게 되고, 그때는 설비투자를 안 하니 돈이 계속 쌓입니다. 그걸 나중에 배당으로 줄 겁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전체 자동차의 2%밖에 안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10년만 지나면 전기차, 수소차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엄청난 성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치킨경쟁에서 살아남고, 최상위 기업으로 유지를 한다면 배당이 얼마나 나올까요?

=>늦게나마 10년 뒤를 내다보고 평생 쓸쓸한 배당을 줄 수 있는 뚝뚝한 자식 하나 입양을 하자, 라는 생각이라면....

=>처음에는 기저귀 갈아줘야지, 맥여줘야지 돈 쓸 때가 많은데, 그 자식이 20년 뒤 대학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평생 부모를 봉양 할 겁니다. 2차전지 섹터 중에는 포스코케미칼이.... 에코프로비엠도 지금은 더 매력적인데...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케미칼에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수소차를 보면 일진다이가 그렇습니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일진다이하 밑에 일진복합소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일진복합소재가 상장된다면 그걸로 바꿔서 장기투자를 해야됩니다.

=>아무튼 이번 코로나라는 이벤트... 분기 실적 악화... 이런 것은 정말 단기적으로 보면 악재일 수 있겠으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아, 30년전에 삼성전자를 사서, 팔지 않고 보유했더라면...'이란 생각을 만약 가지고 계시다면... 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나요. 근데 반도체 치킨경쟁 1등만 한다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1등이 될지 모르니, 그당시에 삼성전자도 사고, LG반도체도 사고, 현대전자도 사고... 그게 맞죠.

=>2차전지 소재도 앞으로 다가 올 치킨경쟁 1등만 한다면...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영원한 강자로 남게 됩니다. 평생 투자 가능합니다.

=>20년전의 네이버를 보고... '상반기 실적이 안 좋네? 에이 팔아야지.' 혹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였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요... 경기가 안 좋다네요...외국인이 파네? 주당순이익 적자가 났네? 에이 팔아야

지.’ 등... 20년 후에 그걸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 초입기의 기업은 분기실적이 좋다, 나쁘다 의미 없습니다.

=>핵심은 2차전지 섹터 소재 기업의 핵심적인 기업이 되느냐의 그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인터넷 기업의 핵심적인 기업이 되느냐 그 가능성에 20년 전에 누군가 투자했던 것처럼....

=>20년 전의 네이버를 보고, 당시 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니, 원자재 가격이 불안하다는니, 대규모 설비투자 비용이 부담스럽다는니,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비싸게 아니냐는니 이런 걱정을 했다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참 어리석죠?

=>포스코케미칼이 바로 그 20년 전 네이버입니다. 장기투자 조건인 1)산업의 성장 2)영속성 3)1등기업 측면에서 보면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코케미칼은 실적분석하는게 예의가 좀 어긋납니다. 20년 뒤에 지구상에 내연기관차 다 사라지고, 전기차, 수소차만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이 기업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실 저는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관심도 없습니다. 기업이 미래에 꼭 살아남아서 배당.... 배당에 관심이 많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치킨경쟁 끝나고 더이상 대규모 설비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쌓인 이익잉여금을 통해 줄 배당... 그거면 평생 주식 팔지 않고, 노후준비도 끝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살아남고, 확고부동한 위치, POSCO가 물량공세, 진입장벽 완전히 높아서 2차전지 섹터 소재의 새로운 POSCO가 되는 것... 포스코케미칼 투자의 꿈은 바로 그런 것이죠.

=>만약 1주에 주가가 20만원인데, 배당금이 2천원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년 전, 20년 전 주가가 5천원일 때 사서, 안 팔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배당금을 2천원씩 준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죽을때까지.... 장기투자자의 꿈은 그거예요. 배당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은 더 높아지고... 도저히 팔 수가 없어서 못 파는거죠.

=>초기에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1등이 되는데, 설비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이 결국 1등이 되더라고요. 설비투자 공격적으로 할 때는 실적이 엉망입니다.

=>지금 2차전지는 초입기고,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설비증설이 폭발적입니다. 양극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

=>전 세계 치킨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배터리 회사 치킨경쟁, 그리고 소재기업 치킨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고, 상위 몇 개 업체들만 살아남고, 그 기업들이 모든 시장을 장악하고 서로 경쟁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과점으로 빠집니다. 서로가 상생구도로 가고, 가격 경쟁을 안 하고, 소수 업체들이 다 독식하자는 게임으로 나갑니다.

=>그때는 설비투자를 더이상 안 합니다. 교체는 하지, 지금처럼 대규모로 안 합니다.

=>설비투자를 안 하면 독과점 기업들이 금고에 돈이 쌓이고, 비록 성장은 멈추지만... 그 돈이 다 주주 배당으로 갑니다.

=>지금 삼성화재의 성장은 멈췄지만, 20년, 30년전 1억 이상 투자한 투자자들은 매년 1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투자자의 꿈이죠. 이 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20년, 30년 전에 10개의 종목에 장기투자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9개의 종목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그 1개의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화재, 네이버라면 그 투자는 매우 성공적인 투자가 됩니다.

=>거기서 평생 투자한 원금 이상의 배당금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치킨 경쟁이 끝났고, 더이상 성장은 어렵지만 평생 특별한 경쟁자 없이(사양산업에는 경쟁자가 진출하지 않는다) 평생 배당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삼성전자처럼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이번에 신규로 제2의 삼성전자를 꿈꾸며 반도체 사업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2차전지 소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장 초입이고, 앞으로 치킨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과제를 얹고 있습니다.

**=>산업과 기업의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장기투자 종목으로 가장 유망하고, 유력한 기업들은 2차전지 섹터 중에는 소재 기업인 포스코케미칼, 수소차는 일진다이나, 고령화 섹터 중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서흥, 대한약품 그리고 인간이 평생 머리를 감는다고 가정하면 연평균3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서 소외된 기업인 KCI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기투자 종목은 깔끔하죠?

=>지금이 아니라 10년 뒤에 포스코케미칼에 투자하면 배당 효과가 그만큼 반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의 성장률이 높아보이지만, 그것은 한 때이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은 2차전지 소재 분야 대장주로 불리고 있지만 가장 큰 약점은 강력한 모그룹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2차전지 섹터에서 소재 분야는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가 100년을 지배한다면 평생 투자해도 된다는 의미인데, 치킨경쟁 이후 살아남 남아준다면...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 향후 10년, 20년 뒤 10배, 100배 상승하는 기업이 나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누가 그 치킨경쟁에서 살아남을지는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차전지 소재 기업에서 주가가 제2의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 제일 유력합니다.

=>다만, 시세가 한 번에 터지면 안 됩니다. 장기로 가려면 삼성전자처럼 엄청 느리게, 조금씩, 천천히 올라줘야 됩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단기적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는 포트에 그냥 쳐박아 뒀 보세요.

=>진정한 투자는 매매가 아니라 주식을 모아나가는 것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옥님의 장기투자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물론, 매매를 해야 되는 기업도 있지만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매매하지 마시고, 일단 10년 동안 주식을 모아가 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100년 이상은 갈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는

계속 성장할 것 같으니 물어두자, 이겁니다.

=>장비주는 전혀 다릅니다. 절대로 장기투자 해서는 안 됩니다. 2023  
년도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회사들의 설비 규모를 보면서 장비주는 보유기간이 1년 더  
짧아질 수도 있고, 1년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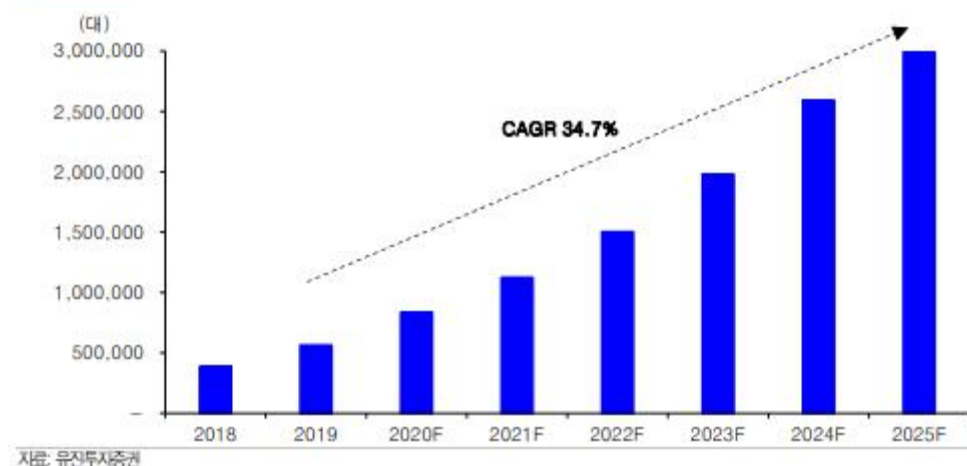
=>그러니깐 씨아이에스가 오죽하면 <전고체 소재 산업>에 진출하려  
고 하겠습니까. 제2의 에코프로비엠이 되어 보겠다고...자기들 생명력  
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2차전지 섹터는 여름에 천다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

### ♣♣♣2020년05월호

도표 5 유럽의 2025년까지의 연간 판매량 성장률



=>이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전기차/2차전지 섹터에 대한  
영향은, “전기차 수요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공장 섯다운에 따른 수요  
가 지연될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이미 전방 업체들에 약속  
된 계약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코로나 섯다운 영향으로 평소  
보다 덜 생산했다면 하반기에는 전반기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됩  
니다.

=>코로나 영향을 받더라도 수요가 지연되고, 정책지원을 받는 섹터이  
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표 6 유럽 그린 뉴딜 예상 산업별 부양안

Building Renovation

자금지원측면	매년 910억 유로 자금 지원 매년 3,500억 유로에 달하는 다른 자금 공급원과 혼합된 '유럽 혁신 금융시설' 시작할 계획
우선순위	공공 부문 건물 (병원, 학교, 사회 주택 및 저소득층 주택 우선)
개인주거용 건물	50억 유로 투자 목표로 녹색 모기지 공급 지원

Renewables and Hydrogen

재생에너지	총 자본 투자액 250억 유로, 2년간 15GW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EIB(European Investment Bank)의 공동 자금 조달 사용하여 2년 동안 100억 유로 국가 제도 지원 청정 수소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자금의 2배가 현재 6억 5천만 유로 향후 10년 동안 공동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100억 유로 추가로 발생
수소인프라	청정 수소 생산 확대 위해 100만 톤의 깨끗한 수소 투입 시작 청정 수소 생산 지원 목표로 하는 CCFD(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시험 계획 포함 EIB가 관리하는 연간 100억 유로의 기금도 수소 인프라에 대한 대출 제공 위해 설립될 것

Clean mobility

전기차 산업	EU 표준에 따라 CO2 및 오염 물질 배출 줄이는 청정 차량용 EU 구매 기구설립: 향후 2년간 200억 유로 무공해 드라이브 트레인에 대한 투자 가속화하는 클린 자동차 투자 기금(400 ~ 600억 유로)으로 전기차 생산 지원 2025년까지 2백 만대의 공공 충전 인프라 투자
철도	르네상스 철도 투자 패키지, 승객과 화물이 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주요 통로 건설에 중점: 400억 유로 철도 차량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야간 열차 서비스 다시 유럽으로 가져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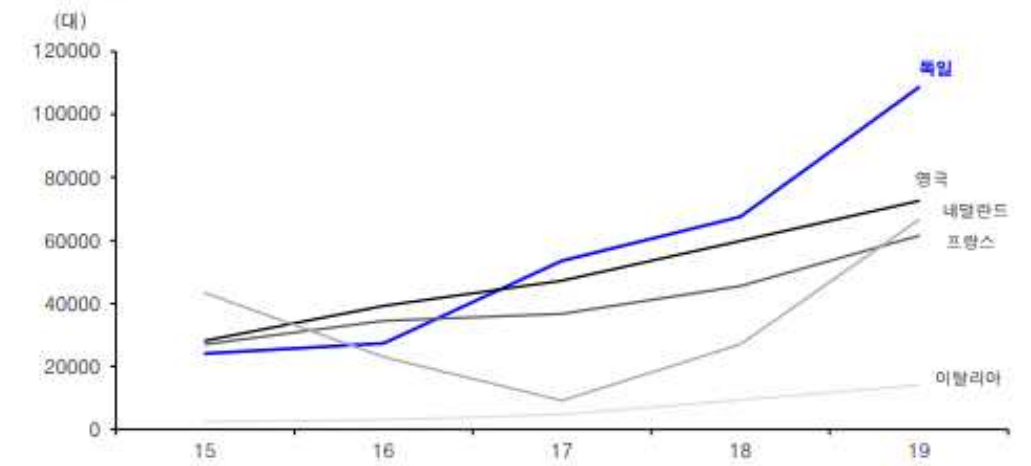
자료: 로이터

=>전기차 섹터의 최근 주가 상승을, “그린뉴딜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던데, 핵심은 아닙니다.

=>전기차 섹터의 주가가 올라왔던 가장 큰 핵심은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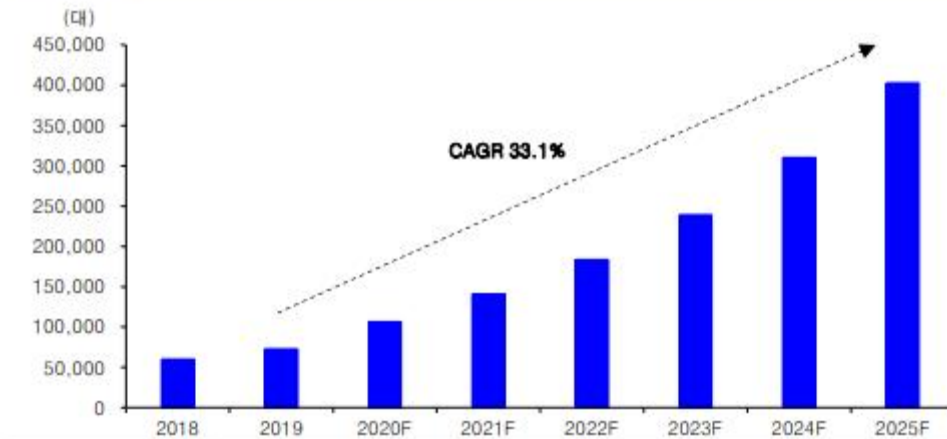
=>왜냐하면 전기차 섹터는 반도체와 함께 경기민감 섹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도표 7 독일, 유럽의 1위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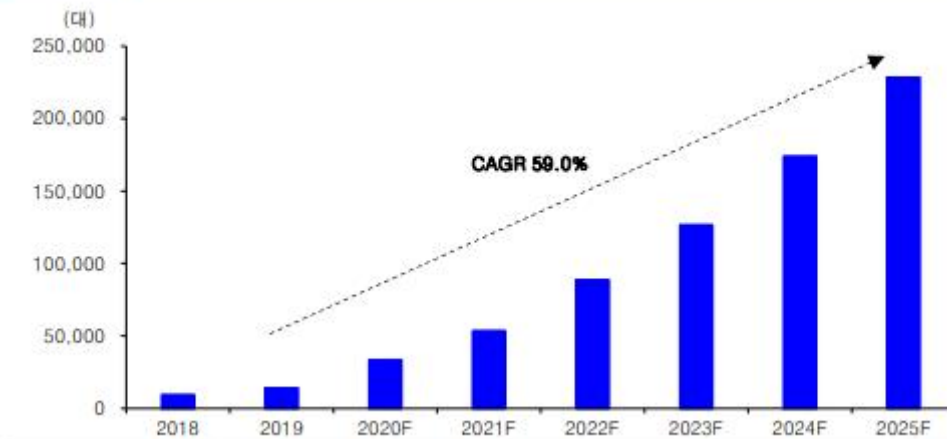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도표 9 영국 연간 전기차 판매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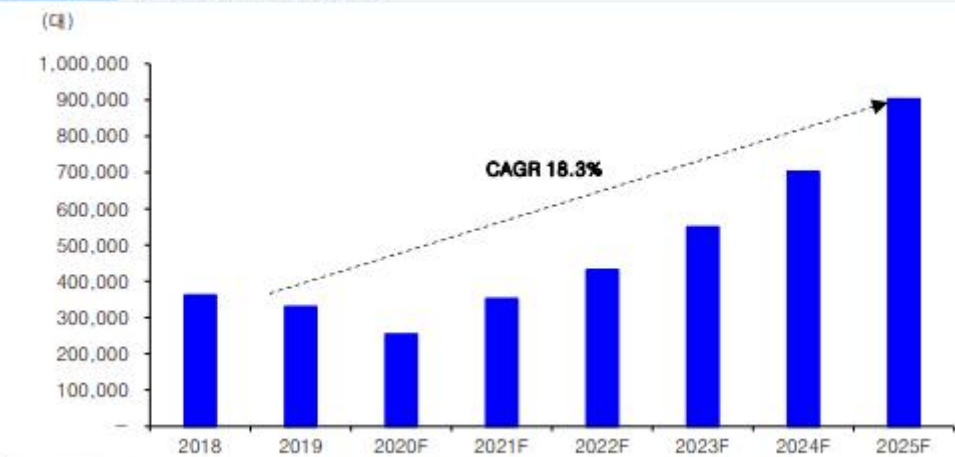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도표 10 이탈리아 전기차 시장 전망**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도표 29 미국 연간 전기차 판매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미중 무역분쟁 최대 수혜 섹터 역시 전기차 섹터가 될 전망입니다.

=>미중 관계 악화에 따른 미국의 중국 경제 봉쇄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 영토 밖으로 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한국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삼성SDI, LG화학의 주가도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월간지(퀘이사)

이번 2년 강세장 경기민감 주도 섹터는 'IT반도체, 전기차'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년 지수를 강세로 이끌고 갈 얼굴 마담(주도주)은 삼성전자, 삼성SDI, LG화학이 됩니다.

166 오후 6:36

#### 월간지(퀘이사)

삼성SDI, LG화학은 이미 이번 2년 강세장 목표가를 설명드렸고, 삼성전자는 2년 동안 지금부터 약 50% 상승한 70,000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72 오후 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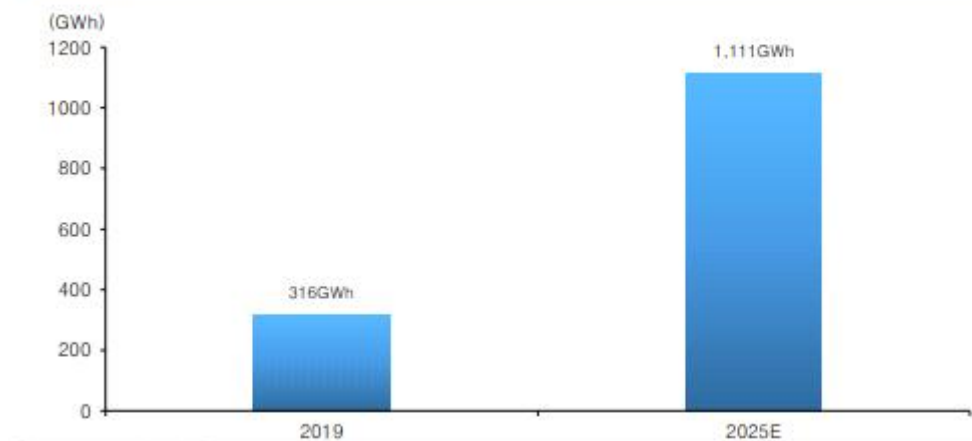
#### 월간지(퀘이사)

삼성전자는 그동안 언택트, 비대면, 전기차 섹터가 가는동안 쉬었는데, 오늘 이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2년 강세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2년동안 50%오르는동안, 삼성전자에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2년동안 약 200%정도 상승할 겁니다.

166 오후 6:42

=>삼성SDI, LG화학의 목표주가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도표 56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CAPA 전망



자료: BNEF, 유진투자증권

=>당분간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가장 큰데, 유럽 전기차 시장은 한국이 중국이 배터리 보조금을 안 주는 바람에 중국 말고 선로를

바꾼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중국의 핑포가 오히려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 ♣이재용, 정의선 만남

#### 월간지(퀘이사)

이재용-정의선이 만난 것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율주행'때문입니다. 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더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193 오후 7:46

#### 월간지(퀘이사)

단순히 배터리 때문에 만난게 아닙니다. 현대차가 배터리야 LG화학,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써도 그만입니다. 굳이 삼성SDI 배터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전기차 이후 자율주행 때문인데 삼성전자가 현대차에게 자율주행, 비메모리를 내어주고(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기술력), 현대차는 그걸 가지고 100년 엔진 시대에 이루지 못한 세계적인 미래 자동차 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서로 윈윈 전략이지만 같은 이재용이고, 둘은 정의선으로 현대차가 삼성전자에게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194 오후 7:49

#### 월간지(퀘이사)

전 세계에서 전기차 사업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과거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주도하지 못합니다. 현대차가 IT 자동차(미래자동차)로 유럽 자동차 회사를 넘어 세계 일류 자동차 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삼성전자'를 파트너로 만들어야 됩니다.

189 오후 7:59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삼성SDI와 현대차의 협력 구도 강화: 삼성SDI의 국내 OEM 고객사 확보, 현대차는 삼성 그룹과의 자율주행관련 및 전기차 기술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게 될 전망

②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대감: 삼성SDI가 전고체 전지 기술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소재업체의 성장성 부각, 2021년 양산이 시작될 Gen5 배터리(1회충전시 600km주행)의 다음 버전인 Gen6 배터리에 전고체(1회 충전시 주행거리 800km) 기술이 채용되어 기존 2025년 이후에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던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이 앞당겨 질 것을 시장에서 기대 하고 있다.

-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및 상용화 시기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중론은 2025년이 가장 빠른 시기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전고

체 배터리는 현재 대중화된 리튬 이온배터리의 주행거리 및 총방전 횟수를 약 2배로 개선시키며 배터리 전해질이 액 체에서 고체로 변화 하는 것 이 가장 큰 특징

- 양극재: 전고체 배터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양극재 개발보다는 기술 변화의 특성 에 맞도록 기존 양극재의 품질적 특성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R&D역 량 필요할 것

- 음극재: 고체전지의 계면 저항에 따른 낮은 이온전도를 높이기 위해 리튬금속(LiMetal)이 이론적으로 이상적이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흑연계도 무방

- 동박: 전고체에 함유되는 황산화물로 인해 동박의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동박에 니켈성분을 코팅하는 형태 혹은 니켈박 으로 소재 변화를 예상

- 장비: 전고체에 분리막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분리막 장비 제조사에는 부정적인 요인, 조립공정에서는 패키징 단계에서 전해액 주입단계가 사라지는 것이 특징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유가도 급락하면서 3월 유튜브를 보면 전기차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비상 상황에 발생하는 일시적 요인이고 전기차의 성장속도를 소폭 둔화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 성장성을 변화시킬 요인은 아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25% 성장하면서 2025년 연간 860만 대(시장침투율 9.0%)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에는 일시 정체되었지만, 2021년 이후 자동차 수요의 회복과 전기차의 차별적 동인들(정부 규제와 경제성 확보, 그리고 기술적 진전 등)로 성장성이 회복 될 것입니다.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배터리 가격의 하락도 기대됩니다. 에너지 밀도 개선에 따른 배터리 용량 증대가 셀 메이커들의 전지 표준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며 1kWh당 배터리 팩 가격은 2016년 270달러, 2020년 122달러, 2024년 98달러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전기차로의 변화는 단순한 동력원의 변화가 아니고,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 대비 자율주행과 공유경제에 유리한 시스템/플랫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드웨어 가치 이상이 있습니다.

=>테슬라를 위시한 IT 기반 완성차들이 시장 입지를 확대하는 가운데, 기존 내연기관 기반의 완성차들도 전용 플랫폼 개발과 신모델 출시를 통해 대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섹터>는 신규매수자의 영역이 아니라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쪽 신규매수를 원하는 투자자(신규 월간지 구독자)를 위해서 <2차전지 섹터>에서 새롭게 <대주전자재료>를 편입해 두었으니 이 종목의 비중을 늘려나가시길 바랍니다.

=====

### ♣♣♣2020년06월호

=>코로나가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그랬죠? 전기차에서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간다는가...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장 가동 지연 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소멸 수요가 아니라 이연 수요로 결국 실적이 하반기에 몰릴 것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는 흐름이죠?

=>최근 영국이 중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6천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독일의 경우 2019년 11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4천유로에서 6천유로로 상향했는데, 최근 정부보조금을 3천유로에서 6천유로로 상향하면서 최대 소비자 보조금을 9천유로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지속적인 그린 정책과 보조금 상향으로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4, 5 월의 짧은 침체기를 뒤로 다시 고속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대보마그네틱 등 기존의 2차전지 섹터의 종목들을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텐데, 어차피 다 에코프로비엠 매도(혹은 비중 축소)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매매의 중심은 그 섹터의 주도주, 대장주를 중심으로 봐야됩니다.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라)

=>2차전지 섹터 주도주는 삼성SDI, LG화학이고 전반전 대장주는 에

코프로비엠입니다.

=>국외로 나가보면 테슬라가 2차전지 섹터를 리드하는 슈퍼 대장입니다.

=>테슬라도 지금 고점이 아닙니다. 주가는 당분간은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전반전) 주가가 큰 상승 이후 실 때는 후반전 종목들이 갑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에서는 이전 종목들이 보유자의 영역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신규로는 동화기업, 대주전자재료 등을 레포트에 새로 편입해 두었습니다. 이는 2차전지 섹터 종목을 매수하지 못한 신규 구독자들을 위한 종목이기도 하였습니다.

=>2차전지 섹터의 대상투는 테슬라가 알려줄 것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관련주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우주로 가는 자동차 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 배터리를 쓸 것이기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의 힘은 더욱 막강해질 전망입니다.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GM, BMW 등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배터리 회사들에게 자동차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생겼습니다.

=>어쩌다 보니 2차전지 섹터 종목을 매수하지 못한 신규 구독자를 위해 레포트를 작성한 2차전지 섹터 후반전 종목인 동화기업, 대주전자재료도 한 달 만에 주가가 무릎을 통과하면서 보유자가 보유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신규매수/추가매수하기 또 애매모호한 위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적은 비중으로 여러번 분할매수를 하는게 좋습니다. 중간에는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끝

※월간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